

‘라이언 킹’ 전북현대 이동국 은퇴 기자회견

“844경기 출장 기록 가장 애착... 지도자의 길 고민중”



‘답답’



‘당황’



‘울컥’



‘왈칵’

정신력 약해져 은퇴 결심
‘나만의 장점’이 룬된 비결
독일과 평가전서 넣은 발리골 최고
다시 돌아가도 프리미어리그 진출
내달 1일 은퇴경기 우승컵 안고 싶어

“K리그의 전설” 이동국(41·전북 현대)은 2009년 전북에서 첫 우승을 이룬 기억을 23년간 이어 온 선수 인생 최고의 기억으로 꼽았다. 반면,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월드컵 불운’은 최악의 기억이면서 ‘보약’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동국은 자신이 12년간 누빈 ‘전주성’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8일 은퇴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50여 분 동안 담담하게 축구 인생을 정리했다. 다만, 아버지와 관련한 말을 할 때는 잠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동국은 38년 K리그 역사상 ‘최고’라고 불릴

만한 활약을 펼쳤다. 특히 전북 유니폼을 입은 뒤로는 K리그 우승 7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을 함께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보냈다. 월드컵에 두 차례 출전하는 등 A매치 105회(역대 10위)에 출전해 33골(역대 공동 4위)을 넣는 등 국가대표로도 족적을 남겼다. 이동국이 프로 무대에 뛰어난 이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지금까지 뛰었던 공식 경기 숫자는 총 844경기, 통산 득점은 344골이다. 둘 다 역대 한국 선수 중 최고 기록이다. 늘 웃기만 한 건 아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TV로 지켜만 봐야 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는 무릎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했다. 두 차례 해외 진출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달렸고, 결국 누구보다 오래, 행복하게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가 됐다. 전북은 내달 1일 안방에서 대구FC와 K리그1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전북의 통산 8번째 우승을 확정할지도 모를 이 경기 이동국의 마지막 경기다.

다음은 이동국과 일문일답. -은퇴 결심 이유는. ▲몸 상태는 아주 좋다.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부상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하루 조금 해하면서 좋은 몸 상태가 아닌데도 욕심내서(경기) 들어가려고 했고, 사소한 것들도 서운했다. 몸이 아픈 것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 나약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 한 끝에 은퇴를 결심했다. -떠나는 기분은 어떤가. 현역 생활을 길게 한 비결은. ▲감안이 교차한다. 멀리 보지 않고 바로 앞 한 경기만 바라보고, 후배들 앞에서 숭선수범하며 생활하다 보니 내 나이를 잊어버렸다. 프로 선수는 선후배를 떠나 ‘경쟁’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프로에서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다.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을 만들면 룬릴 수 있다. -유독 멋진 골 장면을 많이 연출했다. 최고의

골은. ▲독일과 평가전에서 넣은 발리슛 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발이 공에 맞는 순간의 임팩트, 그 찰나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불멸의 기록을 많이 세웠다.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기록은. ▲내가 뀌 공식 경기가 800경기가 넘는다는 걸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됐다. 10년, 20년 꾸준히 잘 했기에 가능한 기록이다. 좋은 경기력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 기록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대구전만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에 뭘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할지 축구 외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 A급 지도자 과정 밟고 있지만, 아직 지도자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참 오랜 시간 칭찬도 많이 듣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힘들 때 도와준 분은. ▲안티 팬들조차 내 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따뭇해줬다. 어젯밤 늦게까지 부모님과 대화

를 나눴다. 30년 넘게 축구선수 이동국과 함께하신 아빠도 은퇴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에 가슴이 찡했다. (한동안 울음) 부모님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몸 상태가 완전히 않은 상태에서 2007년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다. 후회 안 되나.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겠다.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면 도전했을 것이다. 해 봤으니까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다. 후배들에게도 해외 무대에 도전해 보라고 늘 얘기한다. 2005~2006년 몸 상태에서 갔다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 -우승을 목전에 두고 치르는 리그 최종전이 은퇴 경기다. 어떤 각오인가. ▲뭔가 짜놓은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고 은퇴하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기쁨의 눈물이라면 얼마든지 울 수 있을 것 같다. 승점 3점을 가져오면서 우승하겠다. /연합뉴스

광주 FC 박진섭 감독 ‘이적설 소동’



인터넷 매체, FC 서울행 보도
서울 등 타 구단 러브콜은 사실
내년까지 일방적 계약 해지 불가
박 감독 “구단과 신의가 우선”

광주FC의 박진섭 감독이 ‘이적 시장’의 최대 어? 박진섭 감독의 이름이 28일 K리그의 뜨거운 이름이 됐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박진섭 감독의 FC서울행 기사를 단독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 등 타 구단의 러브콜은 ‘진실’이다. 하지만 합의를 마쳤고, 서울에 합류한다는 내용은 ‘거짓’이다. 박 감독은 2018시즌 광주 지휘봉을 잡으며 K리그2에서 사령탑 대열에 합류했다. 감독 데뷔 시즌을 5위로 마무리한 박 감독은 2019시즌 본격적인 자신의 축구를 보여줬다. 19경기 연속 무패를 펼치며 ‘겨울 양복’으로 화제를 모았고, 시즌을 1위로 마감하면서 2년 만에 ‘우승 감독’ 타이틀을 차지했다. K리그1 데뷔시즌이었던 올해에는 3연패로 시작하면서 우려를 샀지만, 시즌 막바지 그는 광주의 사상 첫 ‘파이널 A’ 역사를 만들어냈다. 현역 시절 ‘피돌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43세의 젊은 사령탑. 없는 살림에도 연달아 화제를 모으며 광주의 질주를 이끌었던 만큼 여러 구단이 박 감독에게 눈독을 들여왔다. 열악한 환경의 광주를 생각하면 박 감독에게 서울은 도전해보고 싶은 팀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광주는 ‘우승 감독’으로 박 감독과 지난

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와 한 시즌이 남아있고, 양측의 합의 없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감독의 거취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광주는 K리그1 복귀 시즌에 파이널 A의 역사를 이뤘지만, 파이널라운드에서 승 없이 4패만 기록하고 있다. 오는 1일 울산과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광주는 2020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경기는 ‘K리그1 우승팀’이 걸린 중요한 일전이기도 하다. 이날 울산과 전북의 결과에 따라서 우승팀이 결정된다. 앞선 26라운드 맞대결에서 전북이 0-1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에 앞서 3점 차 1위가 됐다. ‘자력 우승’ 경우의 수가 사라진 울산은 무조건 광주를 이긴 뒤 전북의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K리그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기적 같은 2020시즌을 보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 각 팀은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도전의 시즌을 프로답게 마무리해야 한다. 2020시즌을 상징하는 최종전을 앞두고 괜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라운드가 시름시름했다. 추락의 시즌을 보낸 서울은 다시 한번 ‘촌극’의 주인공으로 달갑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광주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재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구단은 박진섭 감독의 거취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 감독 역시 “광주와의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지난 3년간 함께 이뤄낸 것과 구단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많다”며 “모든 일은 구단과의 신의가 우선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다음 골은 내일 유로파리그

토트넘, 앤트워프와 조별리그 2차전...5경기 연속 골 도전

무서운 상승세에 올라탄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도 또 한 번 득점포 가동을 준비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은 30일 오전 2시 55분 벨기에 앤트워프의 보사웬스타디온에서 로열 앤트워프(벨기에)와 2020-2021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2차전 원정 경기에 나선다. 23일 LASK(오스트리아)와의 1차전에서 후반 39분 쉐기 골로 3-0 대승을 완성했던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본선 2경기 연속 골을 정조준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각종 대회를 통틀어 5경기 연속 골에도 도전한다. 손흥민은 이날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EPL 4라운드, 19일 웨스트햄과의 EPL 5라운드, LASK전, 그리고 27일 번리와와의 EPL 6라운드까지 빠짐없이 골맛을 봤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추가하면 그는 자신의 최

다 연속 경기 득점 기록(5경기)을 재현한다. 손흥민은 2019-2020시즌이던 올해 1~2월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공식 5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벌인 바 있다. 5경기째 연속 골을 폭발했던 2월 16일 애스턴 빌라의 EPL 경기 중 입은 팔 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 한동안 결장했고, 그 사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 축구가 중단되며 그의 흐름도 끊겨 아쉬움을 남겼다. 2020-2021시즌 손흥민은 그때보다 ‘업그레이드’됐다. 햄스트링 부상을 한 차례 겪었는데도 그야말로 불운은 골 감각을 뽐내고 있다. 이번 시즌 9경기에 출전해 10골(EPL 8골·유로파리그 예선 1골·본선 1골)을 터뜨려 일찌감치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 최고의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코로나 재검 양성... ‘메호대전’ 끝내 불발

오늘 UCL 유벤투스 대 바르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또 한 번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이 불발됐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등 현지 언론은 28일(이하 한국시간) 호날두가 바르셀로나FC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2차전을 앞두고 진행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무중상 감염자인 그는 격리 중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하며 건강함을 알렸으나, 21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이어 이번에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올 시즌 UCL 조별리그에서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가 한 조에 속하면서 축구 팬들은 호날두와 메시가 맞붙을 일명 ‘메호대전’(메시·호날두 대전)을 손꼽아 기다렸다. 메시와 호날두가 그라운드에서 겨루는 게 2년 5개월여만이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건 9년 6개월여만이었다. /연합뉴스